

로자 룩셈부르크 - 민병대와 군국주의 (1)

후텐

출처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899/02/26.htm>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 책세상, 2019.

우리는 당내 집단의 다양한 조언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발표된 연재 논문(제1부는 1989년 9월 21~28일, 219~225호, 제2부는 1899년 4월 4~8일, 76~80호)를 한 권의 특별 인쇄본으로 발간한다. 여기서 로자 룩셈부르크 동지는 사회민주당의 전술과 원칙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견해를 상세히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의 초판은 이미 절판되었는데, 이 특별 인쇄본을 통해서 좀더 많은 독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로자 룩셈부르크가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발표한 것으로 실천적 영역에서 기회주의적 흐름을 인식하는 데 꼭 필요한 논문인 민병대와 군국주의에 대한 기고(1899년 2월 20~22, 25일, 42~44, 47호)를 부록으로 실는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논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이프치히 인민신문

국내에 출판된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의 서문은 번역 대본에 '민병대와 군국주의에 대한 기고'가 합본되어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에는 누락되어 있다. 위 서문에 언급된 '민병대와 군국주의에 대한 기고'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없던 4-5장을 제외하고 1~3장을 번역해 차례대로 올리려 한다. 만약 영어나 독일어로 된 원문 전체를 찾는다면 부디 연락 바란다.

The Militia and Militarism (1899)

I

당의 대오에서 우리 강령과 전술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처음도 아니고 바라건대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이 어떻게 가해지는가이며, 이것은 당에서 찬동을 받기 위해 매번 동원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유행이 된 '어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 비판의 일반적 기반, 비판에서 표현된 특정한 세계관(Weltanschauung)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민병대 요구에 반대하고 군국주의에 찬성하는 이세그림(Isegrim)-쉬펠(Schippel)[‘이세그림’은 쉬펠의 필명이었다]의 십자군은 아주 일관적인 사회-정치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

쉬펠의 군국주의에 대한 옹호가 기반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입장은 이 군사 체계의 필연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다.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본성에 대한 가능한 모든 주장을 사용해서 그는 상비군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논증한다. 그리고 특정한 관점에서 그는 상당히 옳다. 상비군과 군국주의는 정말로 필요 불가결하다. 누구를 위해서? 현재의 지배계급들과 정부들을 위해서. 이제 누가 이것에서 현 정부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상비군을 폐지하고 민병대를 도입하는 것, 즉 인민을 무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외에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쉬펠이 마찬가지로 민병대를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단지 그 자신이 군국주의의 문제에서 부르주아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것, 그 문제를 자본주의 정부나 부르주아 계급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은 또한 그의 개별적 주장들 하나 하나에서 분명하게 논증되었다. 그는 민병대 체계의 기본 교의인 모든 시민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이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화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의 주장을 단순히 현재의 프로이센-독일 공공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다른 경제를, 예를 들어 민병대 체계에 재정을 대기 위해 자본가 계급에 대한 누진세를 사용하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다.

쉬펠은 민병대 체계의 또다른 기본적 교의인 청년들의 군사적 훈련을, 그가 말하길, 부사관들이 군사 훈련관으로서 가장 부패한 영향을 청년들에게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물론 그는 그의 주장을 현재의 프로이센 병영 부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의 상상속의 민병대 체계에서 청년의 교육자로 단순히 외삽하고 있다. 쉬펠의 상황에 대한 시각은 사회주의의 사회 체계에 대한 중요한 반대를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주의 지배 아래에서 일반인자들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에서 보던 율리우스 볼프(Julius Wolf) [1] 교수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쉬펠은 오늘날의 군국주의가 사회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고 간주한다. 카우츠키는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인 쉬펠이 이 군국주의가 압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추측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카우츠키는 그러고는 각각의 가능한 설명들에 훌륭한 논파를 곁들였다. 그러나 쉬펠은 완전히 그 문제를 사회민주주의자로서도, 노동계급의 관점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압력의 '해소'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옳다. 자본주의에서 군국주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군국주의는 정말로 압력의 '해소'다. 쉬펠이 여기서 자본주의의 이해를 위한 진정한 대변자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를 지지하는 검증된 권위를 이 지점에서 찾은 것으로 드러난다.

‘신사분들, 저는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1899년 1월 12일의 제국의회 회기에서 말했다, ‘제국의 이백만 채무가 오직 비생산적인 지출에 대한 것이라고, 그리고 어

면 생산적 수입도 이것을 상쇄해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 대한 지출보다 더 생산적인 투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틀림없이 회기 회의록은 ‘좌파의 킬킬거림’을 기록하고 있다... 연사는 슈툼 남작(Baron von Stumm)[주요 독일 산업가이자 무기 생산자]이었다.

모든 쉬펠의 주장들의 성격은 내재적으로 그릇될 뿐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의 관점에 입각해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쉬펠이 말한 것은 거꾸로 된 것으로 보인다. 상비군은 필요불가결하다, 군국주의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민병대는 실용적이지 않다 등등.

쉬펠의 군국주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그의 다른 중요한 정치투쟁의 문제, 즉 관세정책에 대한 태도의 유사점은 흥미를 일으킨다.

첫번째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그의 두 문제들에 대한 취급에서 그 문제들이 민주주의와 반동이란 주제에 대한 입장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발견한다. 우리가 만약 쉬펠이 슈투트가르트 당 학회에서 한 강의를 믿는다면, 자유 무역은 진보와 동일하고 보호 관세는 반동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틀렸다. 길고 넓은 역사적 경험은, 그가 계속하길, 누군가가 자유무역론자인 동시에 반동주의자거나 아니면 보호관세의 지지자이면서 민주주의자의 열렬한 친구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제 거의 같은 단어들로 듣게 된다. ‘우리의 노동 생활을 끊임없는 방해와 중단으로 괴롭히고 부사관의 사고 방식을 우리의 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낮은 학년까지 이식하려 하는, 현재의 군국주의보다 훨씬 더 나쁜, 열정적인 민병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군사적 침해와 징발을 확대하는 데 각각 그리고 모두 적대하는 민병대 반대자들이 있다’ [Die Neue Zeit (1898-9), 580-81]

이 문제들에서 다른 모든 문제처럼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원칙에 따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회주의의 정책을 따른다는 사실이 사회민주주의자인 쉬펠이 그 자신 또한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내리게 했다. 그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보호관세와 군국주의의 안의 반동적인 핵심을, 역으로 자유무역과 민병대의 진보적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실패한다, 즉 그는 두 문제에 대해 원칙에 의거한 입장을 취하는 것 또한 실패한다.

두번째로, 우리는 그의 입장이 두 주제 모두에서 보호관세 정책과 군국주의의 개별적 약에는 반대하지만 전체로서 두 현상에 반대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쉬펠의 강의에서 우리는 과도한 개별 보호관세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들으나 동시에 '전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지' 말라는, 즉 보호관세를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반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게 된다. 이제 우리는 비록 쉬펠이 '의회와 선동으로 수행되는 구체적인 군사적 요구들에 대한 투쟁' [Sozialistische Monatshefte, November 1898, p.495.]은 거부하지 않으나 그가 '현존하는 사회 영역들에서 순전히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사건과 매우 부수적인, 하지만 인정하건대 또한 매우 눈에 띄는, (군국주의의) 반응을 군국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듣게 된다. [Die Neue Zeit (1 no.19)]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두 관점의 기반은 양쪽 모두 현상을 전적으로 이전의 부르주아적 발전의 관점에서만, 즉 그들의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진보적 측면에서만, 더 나아가 그들의 반동적 측면을 드러내는 임박한 발전을 철저히 무시하며 평가하는 데 있다. 쉬펠에게 보호관세는 그것이 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시대, 반세기도 더 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독일의 중세적-봉건적 경제의 파편화를 넘어선 위대한 진전이다. 오늘날 보편적 자유무역은 이미 국가 경제 구조를 넘어서서 통합된 세계 경제로 가는 똑같이 필연적인 진전을 대변하며, 그러므로 오늘날의 국가 관세 장벽을 반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사실은, 쉬펠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국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실은 같다. 그는 아직도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징집에 기반한 상비군이 과거의 모병군과 봉건군에 비교해서 거대한 진전이었던 때와 같은 관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한다. 하지만 여기서 발전은 쉬펠에게 있어서만큼은 멈춰버린다, 역사는 보편적 징병을 더 확대하는 것을 제외하면 상비군 이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세와 군사 문제들에 있어서 쉬펠이 채택한 특징적 입장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첫번째로는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임기응변 정책을 강조하며, 이것과 연결되어 두번째로 그것들은 관세와 군사 체계의 오용만을 공격할 뿐 체계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정책이 우리가 최근 당 역사에서 잘 알게 된 것, 즉 기회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제그럼-쉬펠이 우리의 전체 정치 강령의 근본적인 요점 중 하나인 민병대 공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자 또다시 '실용 정치'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당의 관점에서 쉬펠의 등장의 진짜 중요성은 여기에 놓여있다. 이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최근의 성명은 오직 이 전체 조류와 연결시키고 기회주의의 일반적 기반과 귀결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각주

[1] 당시의 지도적 사회과학자이자 취리히대에서 룩셈부르크의 스승, 볼프는 항상 로자에게 부르주아 형식주의의 무미건조한 측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활용된다.